

신흥출판사 도전으로 문학출판계 새 그림

90년대 문학출판 춘추전국시대 도래... 엄숙주의 거부로 새 바람

이른바 '문학판'에서 출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자사에서 발간하는 문예지는 신인들의 등용문이 되기도 하고, 각종 문학상을 통해 역량 있는 작가들을 키우기도 한다. 결국 문학작품과 독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거의 유일한 통로는 출판사인 셈이다. 문인들이 출판사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메이저 문학출판사들은 문학출판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이들 메이저 출판사의 위치는 상당히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삼각구도에 도전장 내밀어

이런 문학출판계에 새로운 세력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9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이런 조짐은 특히 90년대 중반부터는 문학출판계 전체의 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할 정도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70~80년대 문학출판은 역시 창작과비평사(대표 김윤수), 문학과지성사(대표 김병익), 민음사(대표 박병호)를 축으로 한 삼각구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백낙청 염무웅 등의 평론가와 자유실천문인협회 소속 문인들을 축으로 한 창작과비평사, 김병익 김현 김주연 김치수 등의 평론가와 조세희 최인훈 김승옥 등 기라성 같은 문인들이 버티고 있던 문학과지성사, 김우창 유종호 등의 비평가와 이문열이라는 베스트작가를 보유하고 있던 민음사 등 문학출판의 메카들은 견고한 작가 관리와 수준높은 작품으로 한국 문학 내부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을 구축하고 있었다. 80년대에 풀빛, 실천문학사, 청하 등 나름대로의 개성을 지니고 문학독자들에게 어필한 출판사들은 있었지만 이들의 삼각구도를 깨뜨리지는 못했다.

이런 구도에 처음 도전장을 내민 출판사가 1988년 등록된 세계사(대표 최선호)였다. 증견시인 최승호를 편집인으로 문학시장에 뛰어든 세계사는 당시 사상지의 성격을 진하게 갖고 있던 여타 문예지와는 달리 작가담구를 중심으로 기획되는 계간 《작가세계》와 정현중에서 시작된 《세계사 시인선》, '프랑스 현대문학선' 등을 내면서 90년대초 문학판 내부에 새로운 구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박완서 등 증견 작가들의 전집출간



신흥출판사의 부상으로 문학출판계의 구도가 바뀌고 있다.

과 작가세계 문학상 수상작가인 이인화의 《영원한 계곡》을 빅셀러로 등극시켜 문학출판사로 자리를 굳혔다.

1989년 등록된 살림출판사(대표 심만수)도 문학판에 바람을 몰고 왔다. 기형도 산문집을 비롯, 양귀자, 이문열 등의 책을 내는 한편 엄숙주의를 거부하는 새로운 감각의 문학을 표방한 계간 《상상》을 창간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상상문학상'까지 제정, 본격적인 문학출판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96년에는 양귀자의 《천년의 사랑》, 권여선의 《푸르른 틈새》 등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냈다.

90년 출판등록을 한 솔(대표 임양욱)은 박경리의 《토지》 16권, 김지하의 시집 《중심의 괴로움》과 《틈》 《밥》 등 산문집, 김성동의 《국수》 등을 출간하며 일약 문학출판계에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자크 프레베르, 루 쇤, 장 주네, 백석 등 동서고금을 막론한 시인들의 시세계를 조명한 《세계시인선》을 비롯, 줄리아 크리스테바, 에른스트 블로흐 등 외국 저자들의 소설과 입장총서 등을 출간해 독자와 문학판 내부로부터 좋은 평판을 쌓아가고 있다.

문예지 창간하며 빠르게 자리 굳혀

90년대 들어 양으로 보나 질로 보나 문학판에 가장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출판사는 역시 문학동네(대표 강병선). 93년 출판등록을 한 문학동네는 윤대녕의 《은어났시 통신》, 신경숙의 《깊은 슬픔》, 제 1회 문학동네 문학상 수상작인 은희경의 《새의 선물》

등 소설들과 김훈의 산문집 《풍경과 상처》, 안도현의 동화 《연어》 등 총 76종의 책을 출간하며 90년대 중반을 장식했다.

이문재 남진우 류보선 서영채 황종연 박해현 등 젊은 편집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94년 겨울 창간된 계간 《문학동네》는 "문학이 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수호한다"는 취지로 창간된 이래 7호를 발간하고 있으며, 문화계간지 《리뷰》도 인수해 발간하고 있다. 최근에는 '리뷰 앤 리뷰'라는 새로운 출판사를 등록해 종합출판의 의지도 보

가장 최근에 문학출판계에 뛰어든 강(대표 한승호)은 볼프강 보르헤르트의 전집, V.S. 네이폴의 《홍내》, 김소진의 《자전거도독》, 성석제의 《새가 되었네》 등 작품성 있는 소설들을 주로 퍼내며 문학판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 실용서, 비소설 분야의 베스트셀러 출판사인 김영사(대표 박은주)의 자회사인 미학사도 장정일 백민석씨 등 젊은 작가들의 소설선을 기획하는 한편 문학이 주축이 되는 문화무크지 창간을 준비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90년대 중반 국내 문학출판계의 지형도는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이념의 붕괴, 문학의 위기, 저작권 환경의 변화 등 외부의 변화도 한몫 하고 있지만 그와 연관된 문학판 내부의 '자기변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선점권을 가지고 있던 출판사들이 각기 문학류 이외의 책을 활발히 출간하며 종합출판사로 모양을 바꾸어 가거나, 문화무크지 등을 창간,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안 신흥문학출판사들은 꾸준히 문학판 내부에 자기들의 성을 쌓아가고 있다.

—허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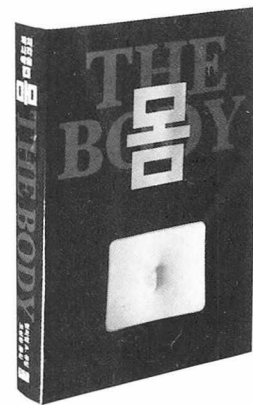
인간의 몸, 그 아름다움과 추함

윌리엄 A. 유잉 지음 《몸》

인간의 몸은 매혹적이다. 엉덩이 곡선, 눈가의 깊은 주름, 아름다우면서도 기묘한 인간의 몸은 언제나 예술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 책은 사진예술의 대가들이 인간의 몸을 탐구한 360여점의 사진영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사 초기의 나다르 메이브리지, 로저 펜튼, 20세기 후반의 존 코플란, 리처드 해밀튼, 디터 아펠트 등 사진예술가들의 다양한 실험적 방법과 시각으로 관찰한 '인간의 몸'이 담겨 있다.

육체를 의학적 해부학적으로 관찰하고 에로틱한 성애를 표현하기도 하며 성적 정치성과 포스트모더니즘적 영상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단편성, 인물상, 탐색, 육체성,



강건미, 에로스, 소외, 우상, 거울, 정치성, 변신, 마음 등의 주제로 나눠 담은 세밀한 몸의 비밀들은 일종의 충격으로 와닿는다.

까지/A5신/432면/19,000원